

Clinical evaluation of Tracheal stenosis

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

박영학 · 최지영 · 진선영 · 조정해 · 조승호

목적

기관협착증은 기관절개술이나 기관내삽관 후 육아종 증식, 염증, 종양, 외상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데 호흡곤란으로 대부분의 환자들이 장기간 기관절개튜브를 유지한 채 지내게 되어 삶의 질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. 본 연구는 지난 8년간 가톨릭의대 여의도성모병원 이비인후과에 기관협착을 진단받은 환자들의 임상경과 및 치료 등을 고찰해보았다.

방법

2003년부터 2009년까지 기관협착을 진단받은 환자 25명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. 기관협착을 일으킨 원인과 방사선학적 검사 소견을 통한 협착부위 및 길이, 수술적 치료의 종류, 예후 및 환자 삶의 질 등을 분석해 보았다.

결과

총 25명의 환자중 남자가14명, 여자가11명

이었으며 평균연령은 51.5세였다. 기관협착을 유발한 원인으로는 장기간의 기관삽관이 20명으로 가장 흔하였으며, 그 외 갑상선암등양의 기관침범이 2명, 외상 1명, 염증성질환 1명, 원인불명 1명이었다.

3D chest CT를 통해 검사한 협착부위의 길이는 1.5~6cm으로 다양하였다. 이들 중 23명에서 기관협착부위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는데 LASER dilatation 3예, tracheal resection with end-to-end anastomosis 11예, cricotracheal anastomosis 1예, T-tube insertion 7예 였다. 2명의 환자는 기관절개튜브를 유지하였고, 12명의 환자에서 기관절개튜브나 기관내삽관튜브 없이 정상적이 호흡이 가능하였다.

결론

기관협착의 정도를 방사선학적 검사 및 후두내시경검사를 통해 정확히 파악하고 협착부위 및 길이에 따른 다양한 치료방법을 통해 기관협착을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 있어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다.